

추억의 '호남선 남행열차' 다시 달린다

전남도 22일 착수보고회 갖고 실행계획 수립 나서

목포·나주·무안·함평 일대 철도여행 명소 육성

역 테마열차 도입·로컬푸드 팩토리 등 역전 철도마을 사업도

추억의 '호남선 남행열차'를 달리게 하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됐다.

21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22일 '호남선 남행열차 사업 실행계획 수립 용역'과 관련해 착수 보고회를 갖고 사업 구체화를 위한 타당성 검토와 실행계획 수립에 나선다. 용역을 맡은 한국관광개발연구원은 내

년 3월까지 호남선 남행열차 사업에 대한 용역을 진행한다.

'호남선 남행열차 사업'은 노래·문학작품 속 호남의 애환·슬픔을 상징하는 '남행열차'를 모티브로 활용, 목포·나주·무안·함평 일대를 철도여행 명소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광주·나주·목포 간 10개 역을 경유하는

테마관광열차를 우선 도입하고 로컬푸드 팩토리 등 역사 및 역전마을에 특색있는 시설을 조성하는 마을재생사업을 펼치게 된다. 특히, 60~70년대 활기 넘치던 나주 도시역을 철도마을로 재생, 철도여행 명소로 키우고 무안 문탄역 주변은 특산물을 활용한 먹거리, 살거리를 개발해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6차 산업마을로 키운다는 구상이다.

나주역·무안역·목포역은 주변 관광투어 거점으로 활용하고 남도패스와 연계, 요금 할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철도패스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전남도는 또

이번 용역을 통해 코레일 관광개발과 철도역을 연계한 투어상품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 '해안·내륙권 연계협력형 지역계획 기본구상'에 의한 실행계획 공모에서 선정돼 추진하게 됐다. 예상 사업비는 119억원 규모로, 전남도와 목포시, 나주, 무안군 등이 참여한다.

전남도 관계자는 "테마관광열차를 도입해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을 위한 불거리를 확충하고 철도마을 주변 원도심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영국 장미의 향연 즐기세요

광주시청 장미원 문 열어

광주시는 장미의 계절인 5월을 맞아 국내 최대 규모의 영국 장미를 선보이는 광주 시청 장미원이 문을 연다고 20일 밝혔다.

시청 장미원은 지난 2016년 11월 조성된 시민휴식공간으로, 총면적 5850㎡에 장미 99종 3435그루와 라벤더 등 허브 식물 2종 1만1320본, 초화류 1750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원은 장미터널과 조형분수, 조각가 정운태씨의 작품 '함께해요? 너 나의 미래', 조형벤치 등이 마련돼 시민들이 봄 향기 만발한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올해들어 분수 주변에 스탠다드 영국장미 30그루를 새로 식재하고 발광다이오드(LED) 장미 시설물을 배치해 야간에 아름다운 정원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시민들과 함께 즐기고 공유하는 열린 청사, 따뜻한 추억과 문화가 있는 공간인 시청 장미원에서 봄을 맞아 만발한 영국 장미의 향연을 만끽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권일 기자 cki@



모내기하는 북녘

21일 경기도 파주시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도라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기정동 마을. 북한 주민들이 모내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갈등 커지는 전남 동부권 통합청사 후보지 공모

광양시의회 "객관성 결여된 평가기준 수용 못해...광양시 참여 반대"

전남도지사 공약사업인 '동부권 통합청사' 건립을 둘러싼 2라운드 공방이 시작됐다. 후보지 공모에 나섰던 자치단체들의 '유치 신청 철회'에 이어 의회에서도 추진과정의 공정성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내는 등 '갈등'이 확산하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과열 경쟁'에 대한 우려가 나오지만 자치단체들이 유치 신청조차 거부할 정도로 평가 기준 하나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데 따른 비판도 커지고 있다. 전남도가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전문가들

로 꾸려진 광주전남연구원에 의뢰한 것 자체가 무색하게 됐다. 이는 것이다.

광양시의회는 21일 전체 의원 명의로 성명서를 내고 '동부권 통합청사 건립 후보지 선정 기준'을 비판했다. 이들은 이날 "광주전남연구원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평가 기준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면서 "특정 지자체에 유리한 평가기준이 있는 상황에서 통합청사 유치 신청은 아무런 의미와 실익이 없다고 판단, 광양시가 동부권 통합청사 건립 후보지 신청에 참여하는 것을 강

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광양시의 '유치 신청 철회'를 넘어 시의회가 자체단체의 유치 신청을 막고 나선 것이다.

전남도 안팎에서는 '반쪽자리 공모'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후보지 선정 기간을 24일까지 늦추며 광양시의 참여를 내심 기대했다. 광양시의회는 그러나 "광주전남연구원은 이해할 수 없는 논리로 광양시가 제시한 평가 기준에 대한 이의 신청을 묵살하고 기존의 평가기준 원안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전남도와 광주전남연구원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광양시는 '통합청사 후보지 평가기준'과 관련, "특정 시에 치우친 평가기준을 설정해 공정성과 합리성이 결여됐다"며 건립 취지를 고려한 기준 변경을 요청했다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자 '보이콧'을 결정했다.

여주시의회도 서완석 의장을 중심으로 전남도의 통합청사 후보지 선정을 위한 평가 기준에 대한 비판 의견을 수렴하면서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담아내는데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남도 안팎에서는 김영록 도지사의 공약사업인 '동부권 통합청사'가 통합은 커녕, 지역 분열과 갈등만 일으키는 사업으로 전락하고 있는데도, 별다른 절차도 없이 강행하려는 행태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 전국 가장 안전한 모범도시"

교통사고 사망 2017년 75.6% ↓ 문 대통령, 5·18기념식서 언급도

광주시가 '안전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올해 초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재난관리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데 이어 교통사고 사망자 규모 역시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성과가 속속 나오고 있다는 평가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제 39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행사에서 기념사를 통해 "광주시가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 감소율 전국 1위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둬 국민안전에 모범이 되고 있다" 언급하기도 했다.

광주시는 21일 지난해 광주 교통사고 사망자는 모두 75명으로 이는 2017년 교통사고 사망자 117명과 비교해 35.9% 감소한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시는 2017년 1~4월 교통사고 사망자가 45명이었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

에는 26명으로 42.2%가 줄었고, 올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다시 57.7% (2019년 4월말 기준 11명) 감소하는 등 2017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무려 75.6%가 줄었다고 덧붙였다.

정중재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이런 성과를 가져온 배경에 대해 "사망사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선별해 무단횡단 방지 시설을 설치하고, 횡단보도에는 LED 조명을 설치하는 등 교통사고 예방시설을 적극적으로 설치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 부시장은 "사망자가 발생한 교통사고 지역은 매일 1회 이상 광주시, 경찰, 교통전문가, 인근 주민들이 모여 사고현장 교통여건을 분석하는 맞춤형 회의를 열어온 점도 효과를 내고 있다"며 "이러한 지역 맞춤형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정책은 최근 전국 우수사례로 꼽혀 행정안전부 중앙·지방 정책협의회를 통해 전국으로 전파됐다"고 소개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광주시민·외국인 화합 축제 보러오세요"

광주시, 26일 문화전당 광장서 '국제교류의 날'

세계 음식·문화체험 등 다채

광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과 시민들의 어울림 축제 한마당인 '제25회 광주국제교류의 날' 행사가 26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광장에서 펼쳐진다.

광주국제교류의 날은 올해로 25년째를 맞는 광주시의 대표적인 내·외국인 문화 교류행사로, 해마다 2000여명 넘는 시민과 외국인이 참여하고 있다.

특히 올해 행사는 광주 외국인출입국 사무소 주관 '2019 세계인의 날' 행사와 함께 개최돼 더욱 다채로운 프로그램들로 진행된다.

우선 행사 하루 전인 25일 오후 4시 광주국제교류센터 강당에서 정중재 광주시 행정부시장이 '안전과 인권, 인문학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특별 강연을 진행한다.

정 부시장은 안전과 인권에 대한 정보들을 수준 높은 인문학 지식과 연계해 소개하며 청중들에게 유익함과 즐거움을 동시에 선사할 예정이다.

행사 당일인 26일에는 미국·캐나다·남아프리카공화국·말레이시아 등 21개국 60개 단체가 참가한 다양한 행사

가 펼쳐진다.

세계 음식과 음료를 맛보는 세계음식체험부터 세계 전통놀이와 문화를 체험하는 세계문화체험을 비롯, ▲국가별 전통공연 ▲외국인 지원기관 홍보부스 ▲글로벌 커뮤니티 운영 ▲인스타그램 사진 인증 ▲경품 추첨 등 시민과 외국인 모두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놀이들이 마련된다.

또 아프리카의 문화와 산업을 배우고 아프리카에서 스타업을 계획하는 기업가·청년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아프리카 커피'가 이날 오전 11시부터 광주국제교류센터 1층 글로벌라운지에서 진행된다. 특히 오전 10시부터는 5·18 민주화운동 39주년을 맞아 '5·18 특별투어'가 실시된다. 투어는 광주국제교류센터 자원활동가인 미

국인 워렌 퍼슨스(Warren Parsons) 씨, 김도원 5·18문화해설사와 함께 5·18 기록관부터 전일빌딩, 옛 전남도청을 둘러보며 5·18민중항쟁의 의의를 되새긴다. 참가비는 무료로 23일까지 선착순 30명을 모집한다.

행사 관련 내용은 주관기관인 광주국제교류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한국형 연금 발전소 분양

(태양)

A 타입 식용달팽이 사육장(건물위)가중치 1.5배
100KW 월 270만원 예상(+1층 농장 임대비)

B 타입 미래형 100KW 550만원(예상) **최단 2년6개월**
현금투자대비(년 40% 수익가능) **자금회수가능**

분양지역

- 경기도 안성시 잔여분 2기
- 영암 신북면 잔여분 5기 (선로 대기중)
- 영광 흥농 잔여분 3기

2019년 8~10월 준공예정

정부지원 농·어촌 태양광 사업안내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관리공단

농협

5년거치 10년상환, 년 1.75% 가능

80% 용자지원사업 / 선착순 접수

2018. 5. 1. 대통령령 농업진흥구역 규제완화 (전·답 가능)

- 한전과 20년 장기 계약 안정적 투자
- 99KW설치시 연금처럼 월250만원 꼬박꼬박 (25년동안 년평균 3,000만원)

부지 매입합니다(전·답가능)

▶실제 농·어업인에 한함(축산업 종사자 우선접수 합니다)

▶해당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1년이상 되어 있으신 분

노후에는 태양광이 효자지!

100년 기업

정직 · 신뢰

(주)해가온개발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87-8

전국대표 ☎ 1588-1543 · 010-3645-1479